

법구경
자기가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가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법구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745-8503
이) 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장전원 04) 734-2680
무로직인이 있는 불교 인복사 대전 본산시 인신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2월 13일 수요일(주간) 제 298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불교 출판의 내일을 논할 때마다 '희망 없음'을 한탄하는 소리가 높다. 불교 출판계가 이렇게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은 한 두가지 원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남의 탓만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불교출판계가 어려움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본질은 무엇일까. 돌이켜 보면 우리 불교계는 스스로 출판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불교출판이 본격화된 시기는 80년대. 그 이후 불교출판은 부흥기를 맞는다. 불교출판사는 줄이어 문을 열었고,

불교출판

학술·문화재 책 줄고
수필류·담사기 늘어

출판물 역시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요즘에는 한 달에 20여종 이상의 신간이 출간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적 증가에 비해 질적 향상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학술·문화재 등 불교전문서적들은 줄어가고 수필과 담사기, 그리고 번역서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책이 독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불교출판인이라면 최소한 '어떤 책을 낼 것인가', '어떤 필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출판물에서 그러한 의지가 담긴 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책들이 더 많다. 심지어 모 불교출판사가 최근 내놓은 책의 경우 다른 출판사의 관련서적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거나, 아예 자기 출판 형태의 법공양서 등을 출판사의 주력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스님'을 지나치게 상품화해 불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좋은 불사를 펴내기 위해 발산 없이 세를 하는 불교출판인들이 늘어나지 않고는 불교출판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nia.com)

불교서적·모든 것! 세시사물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 02) 737-0695 Fax: 02) 737-0696

복지부 입법예고 '종교계 납골시설 30명 규제' "화장·납골 장려 말뿐인가"

공청회서 학자-전문가 한목소리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가 11월 18일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종교계의 납골시설 면적을 30명 이하로 규제할 조항이 화장·납골문화 확산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지난 5일 생활개혁실천국민회의와 화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서울 YWCA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필도 교수(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학과)는 "개정안이 납골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종교계의 납골시설 면적을 제한한 것은 사실적으로 납골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고, 허근두씨(한가로 경기남부지사장)는 "30명 미만의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면적이 너무 작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배영철씨(서울시 노인복지과)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교단체의 구상인이 수천 명을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면적제한은 분명 무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불교계의 납골시설 건립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계 관계자들은

납골당의 경우 30명 규모에 많아야 12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 지속성과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형 납골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찰들로서는 업무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조계종 복지재단은 면적제한 조항이 화장·납골문화 확산을 가로막는다고 판단.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 조항을 삭제시킬 것을 요청했다.

지난 2년간 화장문화 캠페인을 벌여온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 사무처장은 "화장을 하면 대부분 납골을 하는데 납골시설이 부족해진다"며 "납골시설을 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으며, 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면적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화장·납골문화를 장려하는 국가정책 측면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김현준 사무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된 후 법적처리의 규제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nia.com)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필스님(가운데)과 부소장 진화, 보존실장 남일스님이 크리스탈 불탑에 담은 '고려대장경 2000'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고영매 기자

"방송광고 자율경쟁 반대"

조계종총회 결의문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하)는 5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송광고 시장 자율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업 출자 금지 등을 촉구했다.

중앙총회는 결의문을 통해 "방송공고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공공재이자 한정재 화인 방송을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취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완전히 유영정체제로 방송광고시장이 법제화되면 방송은 상업주의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총회의원들은 또 "방송의 공

익 목적 수행에 적합한 정도와 방법으로 광고재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공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문화발전기금의 신설 △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강화 △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업 출자 금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에 방송사와 외국자본, 대기업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골프장 등 위락시설 사찰 환경분쟁 요인"

조계종 '분쟁현황' 조사

사찰환경 분쟁의 주요 원인이 골프장, 온천, 리조트 등 위락시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무원 사회부(부장 양산)가 최근 조사한 '사찰환경분쟁 현황 통계'에 따르면, 90년 이후 10년간 일어난 93건의 사찰환경 분쟁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골프장, 온천, 리조트 등 위락시설과 관련된 것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도로 개설 10건, 관광 개발 8건, 도흥 건물 건설 8건, 케이블카 설치 4건, 댐 건설 2건 등의 순으로 분쟁요인이 분석됐다.

90년 해인사 골프장 문제를

계기로 종단 안락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사찰환경 분쟁은 96년부터 발생한 분쟁 건수가 전체 분쟁의 70%를 웃도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실시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환경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조계종의 분석이다.

총무원 사회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찰환경분쟁 사례집>을 연내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 10월부터 4년여간 축적한 사찰환경분쟁 사례 자료를 망라한 이번 사례집에는 개별 사찰의 환경분쟁 대응 지침 자료를 비롯해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등을 통한 법률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게재하여 전국사찰에 무료 배포한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nia.com)

베이징 회동 대책 논의 종단협 각종단 간담회

종단협의회는 4일 각 종단 실무부장 간담회를 열고 조분련과의 베이징 회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13-14일 사이 각 종단이 조분련과 개별적으로 회동하되, △종단협의회 실무대표단 방북 △남북불교도 통일포럼의 △기타 교류사업을 의제로 삼기로 했다.

한편 총무원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태고종은 조분련과의 베이징 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천태종은 개별 접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디지털대장경 '봉정식'

1만2천여명 동참

세계 첫 디지털 한국대장경인 '고려대장경 2000' 봉정식이 6일 울림빅 컨벤션장에서 1만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우렁찬 법고와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봉정식에서는 백양사 방장 서용스님과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됐고,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대독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 대통령은 메

시지에서 "고려대장경 2000이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림, 진화(고려대장경 부소장), 남일(고려대장경 보존실장) 스님이 '고려대장경 2000'을 담은 높이 40cm의 크리스탈 불탑을 봉정하고, 시연회를 열었다.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에는 김덕수 사물놀이, 최익환과 두드락, 이마숙 무용단, 온경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의 축하 공연과 박정숙·장사익 씨 등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다. 오종욱 기자(gobacou@buddhania.com)

제 6회 신행수기 공모 16일 마감

교계와 경관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심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현대불교신문 제6회 신행수기 공모가 16일로 마감됩니다. 가솔에 담아두어 온 감동같은 신행체험담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총무원 집행부에서 추진한 신행수기 공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심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상작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되오니 이번 공모에 불타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이내
- △마감: 2000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2001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 △시상내용
 - 대상(유망상): 상장, 부상(순금 향운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운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운의 열쇠)
 - 천태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운의 열쇠)
 - 관음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운의 열쇠)
 - 총화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운의 열쇠)
 - 은근조 진언: 기념품 증정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지금 계시는 주변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리의 자동차도, 지하철도, 아이들의 자전거도
철이 없다면 달릴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철을 만드는 세계적인 철강회사-포스코
철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멈춰 버릴지도 모릅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포스코입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POSCO
www.posco.co.kr